

외모 언어가 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s of 'Appearance Language' on Sexual Impulse

Myung-Sook Ha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7. 10. 30. 접수 : 2008. 2. 28. 채택)

Abstract

These days,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or at school is being socially visualized. In this study, the desirable direction for clothing behavior is suggested by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esire and clot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mpulse and clothing is provided by studying college student's general opinion about sexual desire, also different ideas from females and males about the clothes that cause sexual impulses were studied, moreover, the desirable direction for clothing behavior is suggested by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about overly revealing clothing. This study performed the self description method and in-depth interview method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 3 University for 3 weeks from May, 28, 2007 to June, 23, 2007. After which 564 survey papers were distributed. The program SPSS WIN 12.0 was us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T-test, and a reliability test were performed on the study subjec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exual impulses are affected not only by internal factors but also external factors such as clothing and it is an important point. Women should not only pursue an attractive external appearance but also consider how other people think and respond to the message, and they should protect themselves from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which are anti-social behaviors, by wearing clothes that are less stimulating.

Key words: sexual impulse(성충동), revealing clothing(노출 의복).

I. 서론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1993년 서울대학교 우 조교 성희롱 사건,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집단소송사건, 2005년 국회의원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 등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서의 성희롱 문제

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단체뿐 아니라 학술계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구체화되고 있다. 성충동에 관한 사건들이 일시적인 성적 욕구나 단순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음주, 의복, 대중 매체 등의 환경적인 외적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성충동이라는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hans@smu.ac.kr

것은 단지 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보다는 직업, 정의식, 개인 가치관, 사이버포르노그래피, 의복에서의 성적 흥미 유발, 음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외부적 요인 중에서 특히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의복은 인체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며, 지각자인 이성에게 강한 성적 흥미를 유발하게 하므로 성충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행위로서 인간의 내면 의지를 반영하는 의복을 입게 된다. 예전과 다르게,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현대의 많은 여성들은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되거나, 신체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 노출은 현대 패션에 있어 자인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체가 드러나는 의복은 그 노출된 부위와 면적 등에 따라 지각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의도와 취향에 의해 선택·착용된 의복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체 노출을 통해 성적 매력을 보여주는 의복들은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흥미 뿐만 아니라 성충동을 유발하여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충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을 통해 성충동과 의복의 관련 여부를 살펴본 다음, 성별에 따른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형태의 차이와 신체 노출이 심한 의

복을 입었을 때 남녀 대학생들이 느끼는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충동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의복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실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성충동의 일반적 견해와 의복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형태를 알아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신체 노출 의복에 대한 견해를 착용자와 지각자의 관점에서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은 외모 언어(appearance language)로 비인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Hillestad¹⁾은 의복을 외모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정의하여, 의복의 실루엣, 색채, 질감, 무늬들을 중요한 외모 언어로 간주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의복의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실루엣이 가장 중요한 언어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실루엣과 신체 노출에 관한 연구들도 행해지고 있다.

성충동이란 ‘흥분할 만큼 강한 성적 자극,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성충동의 동작이나 행위가 수행되지 않을 때는 불안감과 불쾌감이 따름’이라고 이명선²⁾은 정의했다.

성충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적 요인인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고 서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이 적게 일어난 반면³⁾, 분위기⁴⁾나 음주⁵⁾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한 성적 피해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분위기가 로맨틱하고 좋을수록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았으

1) R. Hillesta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5 (1980), pp. 117-125.

2) 이명선, "청소년의 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6권 2호 (1999), pp. 41-54.

3) S. A. Small and D. Kerns,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No. 4 (1993), pp. 941-952.

4) C. Smith,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Work* Vol. 42 No. 4 (1997), p. 334.

5) 김예정, 김득성,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권 3호 (1999), pp. 187-202.

6) 김용미, 김현옥,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4호 (2001), pp. 185-199.

7) 윤경자, "대학생들의 혼전 성 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권 4호 (1995), pp. 251-263.

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원하지 않는 성 경험에 더 관련되어진다¹⁰⁾고 하였다. 음주, 노출 의복, 성충동을 포함한 성행동은 서로 별개의 행동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성들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Terry와 Doerge는 대학생들에게 8가지 상황 사진을 보고 여성들이 성폭행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남의 시선을 끄는 의복을 착용하거나, 비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성폭행 당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의복에서 인지된 성적 자극은 피해자의 책임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성적인 의도를 갖는 속성들이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속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 상황에서 귀찮을 수도 있으나, 성폭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¹¹⁾고 하였다.

또한, Lewis와 Johnson¹²⁾은 성범죄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원인 귀속에 미치는 영향의 규명을 통해 의복 지각자의 성은 의복과 상호 작용을 나타내어 남자 지각자는 피해자가 가장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의복 착용시 성범죄를 피해자 책임으로 강하게 원인 귀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Lewis와 Johnson¹³⁾은 의복이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도를 3수준으로 조작하고 연구한 결과, 가장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은 비치는 망사 옷으로 나타났으며, Wildman, Brown, Trice¹⁴⁾는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복의 형태는 가슴을 드러낸 형태라

고 하였으며, McCullough, Miller, Ford(1977)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하는 의복 상징으로는 미드리프 톱, 니트 셔츠, 짧은 스커트, 팔과 등이 나온 홀터 스타일의 의복, 앞이 깊이 파진 네크라인, 짧은 바지, 슬릿을 넣은 의복 등이 있다고 하였다. Mazelan¹⁵⁾의 연구에서는 낮은 목둘레선, 짧은 스커트, 비치거나 몸에 꼭 끼는 의복이 성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정민¹⁶⁾은 여성의 인체에 타이프하게 입어 몸의 곡선미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의상은 나체를 연상하게 하고, 인체의 굴곡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누드보다 더 섹시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되거나 신체의 윤곽선이 드러나는 의복들에서 성충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김지연¹⁷⁾은 노출이란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거나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김선영¹⁸⁾은 신체 노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내면적 욕구에 있으며, 신체 노출 디자인은 노출 방법, 노출 부위, 노출 기법, 노출 면적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Mathes와 Kempfer¹⁹⁾은 지각자들은 신체 노출이 많은 의복의 착용이 착용자의 개방적인 성 태도와 행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McCullough(2001)²⁰⁾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의복

- 8) 윤경자,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호 (2002), p. 245.
- 9) A. Abbey, L. T. Ross, D. McDuffie and P. McAuslan, "Alcohol and dating risk factors for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1996), pp. 147-169.
- 10) 윤경자, *Op. cit.*, p. 247.
- 11) 김순심 외 3인 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1990), pp. 48-49 재인용.
- 12) L. Lewis and K. P. Johnson, "Effect of dress, cosmetics,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TRIJ* Vol. 8 No. 1 (1989), pp. 22-27.
- 13) *Ibid.*, pp. 22-27.
- 14) R. W. Wildman, A. Brown and C. Trice, "Note on males' and females' preference for opposite sex body parts, bust sizes and bust revealing clothing," *Psychological Report* Vol. 38 No. 2 (1976), pp. 485-486.
- 15) P. Mazelan, "Stereotypes and receptions of the victims of rap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5 (1980), pp. 121-132.
- 16) 이정민 외 2인,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의 인지도에 관한 성별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0호 (2005), p. 1319.
- 17) 김지연, 이경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체 노출의 감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5호 (2001), p. 915.
- 18) 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 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7권 1호 (2007), p. 29.

을 선택할 때 여성이 선호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며, 많은 여성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의복을 성적 매력 향상의 도구로 간주하여 노출·은닉·신체의 강조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권기영²¹⁾은 신체 노출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노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출을 통한 색시미 강조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Cahoon & Edmonds²²⁾는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의복은 일반적 스타일의 의복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성범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Abbey²³⁾는 특정 상황에서의 남녀의 노출, 관능, 인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격적으로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보다 관능적, 유혹적이며 경박한 성격을 가지며 자유분방한 성 태도에, 사려가 없고, 불성실한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출이 적은 옷을 입었을 때 더욱 쾌활, 다정, 유쾌, 따뜻하며, 친절하게 지각되었으나, 관능성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Zellman²⁴⁾은 남녀의 관능적 의복 행위와 성윤리 의식 및 성관련 행위의 개방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남자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자유로운 성태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나, 여성의 관능적 의복 행위는 낮은 상관이 있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 신소진²⁵⁾은 성적 자극성이 높을수록 외모 매력과 선호는 낮아지며, 특히 하의의 성

적 자극성이 높을수록 매력 인상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열린 가슴 클리비지 룩'²⁶⁾에 의하면, 현대 21세기에는 신체 노출 의복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보다 자신감과 성적 건강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들은 착용자의 많은 성적 매력을 드러내게 하며, 성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복과 성충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성충동과 의복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두 차례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3주 동안 상명대학교·경원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선행 연구와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자유기술식의 설문지법과 심층면접법이 함께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2차 예비조사 및 심층 면접

19) E. W. Mathes and S. B. Kempher,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3 (1976), pp. 495-498.

20) E. A. McGullough, et. al.,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s and Usage," *H.E.R.J.* Vol. 6 (1977), p. 165.

21) 권기영, "패션잡지 광고에서 보여 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호 (2004), pp. 100-111.

22) D. D. Cahoon and E. M. Edmonds, "Estimates of opposite-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65 (1987), p. 406.

23) A. Abbey, C. Gozzarelli, K. McLaughlin and R. Harnish, "The effects of clothing an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7 (1987), pp. 108-126.

24) G. Zellman and J. Goodchilds, *Becoming sexual in adolescence*, in F.R. Allgeier and N.B. McCormick, ed., *Changing Boundaries: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 (1983), pp. 49-63.

25) 김인숙, 신소진,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상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1994), pp. 501-514.

26) "열린가슴 클리비지 룩... 자신감과 색시미 과시", 스포츠 투데이 [2003년 5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stoo.com>

을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 612부 중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총 564부, 남학생 312부, 여학생 252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예비 조사 설문지는 주로 자유 기술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은 각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들을 6개씩 뽑아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부분의 문항들은 조사대상자들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18개와 20개의 응답들을 뽑아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예비 조사를 걸쳐 본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성행동에 관한 문항 3개, 두 번째 부분은 성충동에 영향을 끼치는 의복에 관한 총 39개 문항(의복 형태에 관한 문항 18개, 노출 의복 착용 이유에 관한

문항 1개, 노출 심한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봤을 때의 느낌에 관한 문항 20개), 세 번째 부분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test,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3.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행동에 관한 문항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여자 대학생(N=253)		남자 대학생(N=310)	
		빈도(N)	퍼센트(%)	빈도(N)	퍼센트(%)
연령	21세 이하	47	18.6	37	11.9
	22~23세	164	64.9	101	32.5
	24~25세	33	13.0	100	32.4
	26세 이상	9	3.6	72	23.2
학년	1학년	49	19.4	49	15.8
	2학년	89	35.2	114	36.8
	3학년	72	28.5	79	25.5
	4학년	43	17.0	58	18.7
	기타(대학원)	0	0	10	3.2
전공	인문 사회	66	26.1	124	40.0
	자연계열	75	29.6	139	44.8
	사범대	7	2.8	20	6.5
	생활과학대	80	31.6	21	6.8
	예체능계열	25	9.9	6	1.9
경제적 위치	1,000만원 이상	15	5.9	20	6.5
	700~999만원	21	8.3	22	7.1
	400~699만원	100	39.5	96	31.0
	200~399만원	77	30.4	111	35.8
	100~199만원	22	8.7	30	9.7
	100만원 미만	18	7.1	31	10.0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성행동에 관한 일반적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대학생들이 정의하는 성충동의 범위, 성충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성충동 피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문항은 예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율 기술한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들을 6개씩 뽑아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어 조사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성충동의 정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상관없이, '일시적 성직 욕구 행위'가 49.1%로 성충동의 정의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충동을 억제 못하는 행위'는 32.4%, '이성에 대한 육체적 관심'은 1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대생의 경우 '충동을 억제 못하는 행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8.9%로 남자 대학생의 27.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 관심'으로 보는 견해가 22.1%로 여자의 8.7%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22.189)를 보였다($p<0.001$).

성충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녀 대학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충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녀 대학생 전체 집단으로 볼 때, '본능적 욕구'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제력 부족'이 30.7%, '정신적 문제'가 8.7%, '대중 매체'가 2.1%, '웃차림'이 1.6% 순서로 나타났다. 성충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능적 욕구', '자제력 부족', '정신적 문제'로 개인 내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인 요소로는 '대중매체'와 '웃차림'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음주, 돈, 여가 시간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외적인 요인 중에서 의복이 대중매체와 함께 성충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증명된 것이라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자제력 부족(40.9%>22.4%)'과 '정신적 문제(11.1%>6.7%)'에서 남자 대학생의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본능적 욕구(65.1%>44.8%)'와 '웃차림(1.6%>0.4%)'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32.050)를 보였다($p<0.001$). 이상에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적 요인인 웃차림 때문에 성충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충동에 대한 생각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전체	$\chi^2(p)$
일시적 성직 욕구 행위	126	151	277	22.189*** (0.000)
	50.0%	48.4%	49.1%	
이성에 대한 육체적 관심	22	69	91	
	8.7%	22.1%	16.1%	
충동을 억제 못하는 행위	98	85	183	
	38.9%	27.2%	32.4%	
성희롱	2	4	6	
	0.8%	1.3%	1.1%	
성폭력	1	1	2	
	0.4%	0.3%	0.4%	
기타	3	2	5	
	1.2%	0.6%	0.9%	
전체	252	312	564	
	100.0%	100.0%	100.0%	

*** $p<0.001$ 수준에서 유의.

〈표 3〉 성별에 따른 성충동이 발생하는 이유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전체	$\chi^2(p)$
본능적 욕구	113	203	316	32.050*** (0.000)
	44.8%	65.1%	56.0%	
자제력 부족	103	70	173	
	40.9%	22.4%	30.7%	
정신적 문제	28	21	49	
	11.1%	6.7%	8.7%	
대중매체	4	8	12	
	1.6%	2.6%	2.1%	
옷차림	1	5	6	
	0.4%	1.6%	1.1%	
기타	3	5	8	
	1.2%	1.6%	1.8%	
전체	252	312	564	
	100.0%	100.0%	100.0%	

*** $p < 0.001$.

〈표 4〉 성별에 따른 성충동 피해 원인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전체	$\chi^2(p)$
여성이란 이유	117	73	190	46.759*** (0.000)
	46.4%	23.4%	33.7%	
노출이 심한 옷	67	99	166	
	26.6%	31.7%	29.4%	
관능적인 여성	15	67	82	
	6.0%	21.5%	14.5%	
밤 늦은 귀가	21	28	49	
	8.3%	9.0%	8.7%	
진한 화장	1	2	3	
	0.4%	0.6%	0.5%	
기타	31	43	74	
	12.3%	13.8%	13.1%	
전체	252	312	564	
	100.0%	100.0%	100.0%	

*** $p < 0.001$.

성충동 피해 원인에 대한 남녀 대학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충동 피해를 당하는 원인은 전체적

으로 '여성이란 이유'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이 심한 옷'이 29.4%, '관능적인 여성'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의 경

우는 '여성이란 이유'가 46.4%로 남자의 23.4%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관능적인 여성이 21.5%로 여자의 6.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이 심한 옷'의 경우 남자 대학생(31.7%)이 여자 대학생(26.6%)보다 높은 통계치를 보였으나 여학생 역시 높게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성충동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46.759)를 보였다($p < 0.001$). 이는 남의 시선을 끄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성추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Terry와 Doerge의 견해와 남자 지각자가 여자 지각자보다 성충동 피해 원인을 착용자의 노출 의복의 탓으로 돌린다는 Lewisc와 Johnson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2.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형태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들은 예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자술로 기술하거나, 또는 심층 면접 과정을 걸쳐 나타난 의복들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18개의 의복을 선택하여 연구 조사하였다.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들이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t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췌골 전체가 드러나는 상의', '타이트한 가죽 재킷', '밑 위 길이가 짧아 허리가 드러나는 바지', '찢어진 청바지', '앞이나 옆에 트임이 깊게 들어간 스커트', '얇거나 비치는 옷'을 제외하고, 다른 의복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얇거나 비치는 옷', '앞이나 옆에 트임이 깊게 들어간 스커트', '밑 위 길이가 짧아 허리가 드러나는 바지', '췌골 전체가 드러나는 상의'는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성충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의복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타이트한 가죽재킷'이나 '찢어진 청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표 4>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성충동 피해를 당한다고 나타난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선이 들여다 보이는 상의', '몸 전체에 노출이 심한 옷', '어깨가 없는 탑', '등의 절반이 드러나는 상의', '스판덱스 소재의 셔츠', '망사 스타킹', '배 전체 노출이 되는 옷', '몸

매선이 드러나는 옷', '영덩이의 아래선이 보이는 짧은 바지', '타이트한 원피스', '미니스커트', '망사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옷'의 항목들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모두 '몸 전체에 노출이 심한 옷',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선이 들여다 보이는 상의'가 가장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어깨가 없는 탑', '망사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옷', '얇거나 비치는 옷'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얇거나 비치는 옷', '망사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옷', '배 전체 노출이 되는 옷', '미니스커트'로 나타났다. 이는 Mazelan의 연구 결과인 낮은 목둘레선, 미니스커트, 비치거나 몸에 꼭 끼는 의복이 성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선이 들여다보이는 상의'($t=2.48$, $p < 0.05$)의 경우, 여학생($m=4.07$)이 남학생($m=3.88$)보다 성충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 전체에 노출이 심한 옷'($t=2.42$, $p < 0.05$)의 경우에도 여대생($m=4.08$)이 남학생($m=3.89$)보다 더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어깨가 없는 탑'($t=2.39$, $p < 0.05$)의 경우 역시, 여대생($m=3.79$)이 남학생($m=3.31$)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절반이 드러나는 상의'($t=4.70$, $p < 0.001$)의 경우, 여대생($m=3.60$)이 남학생($m=3.18$)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판덱스 소재의 셔츠'($t = -2.17$, $p < 0.05$)의 경우에는 여대생($m=2.71$)보다 남학생($m=2.89$)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망사 스타킹'($t=2.79$, $p < 0.01$)의 경우는 여대생이 3.19, 남학생이 2.92로, '배 전체 노출이 되는 옷'($t=4.94$, $p < 0.001$)의 경우도 여학생이 3.56로 남학생의 3.11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두 의복 모두에서 더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매선이 드러나는 옷'($t = -3.25$, $p < 0.001$)의 경우에는 여대생이 3.05점, 남학생이 3.34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영덩이의 아래선이 보이는 짧은 바지'($t=4.05$, $p < 0.001$)의 경우에는 여자가 3.57점, 남자가 3.17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

〈표 5〉 성별에 따른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아이템의 차이

		N	M	SD	t	p
쇄골 선체가 드러나는 상의	여자	252	2.93	0.97	-1.37	0.172
	남자	312	3.05	1.12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선이 들여다 보이는 상의	여자	252	4.07	0.83	2.48*	0.013
	남자	312	3.88	0.97		
몸 전체에 노출이 심한 옷	여자	251	4.08	0.91	2.42*	0.016
	남자	312	3.89	0.97		
어깨가 없는 탑	여자	252	3.79	3.32	2.39*	0.017
	남자	312	3.32	1.08		
등의 절반이 드러나는 상의	여자	252	3.61	1.00	4.70***	0.000
	남자	312	3.18	1.11		
스피덱스 소재의 셔츠	여자	252	2.71	0.93	-2.17*	0.030
	남자	312	2.90	1.04		
타이트한 가죽재킷	여자	252	2.35	0.96	-1.02	0.308
	남자	312	2.44	1.09		
방사 스타킹	여자	252	3.20	1.09	2.79**	0.005
	남자	312	2.92	1.23		
배 전체 노출이 되는 옷	여자	252	3.57	1.01	4.94***	0.000
	남자	312	3.12	1.13		
밑 위 길이가 짧아 허리가 드러나는 바지	여자	252	3.12	1.10	-0.090	0.929
	남자	312	3.13	1.11		
몸배선이 드러나는 옷	여자	252	3.06	1.04	-3.25***	0.001
	남자	312	3.34	1.02		
찢어진 청바지	여자	251	1.86	0.90	-1.92	0.056
	남자	312	2.01	1.00		
엉덩이의 아래선이 보이는 짧은 바지	여자	252	3.58	1.09	4.05***	0.000
	남자	312	3.18	1.21		
타이트한 원피스	여자	252	2.98	1.01	-2.88**	0.004
	남자	312	3.22	1.02		
앞이나 옆에 트임이 깊게 들어간 스커트	여자	251	3.39	1.00	0.56	0.574
	남자	312	3.35	1.02		
마니스커트	여자	252	3.25	0.97	-2.76**	0.006
	남자	312	3.49	1.02		
방사처럼 보일 듯 발 뚫 한 옷	여자	252	3.74	1.02	2.32*	0.021
	남자	312	3.53	1.10		
얇거나 비치는 옷	여자	252	3.65	1.02	-0.504	0.615
	남자	312	3.70	1.042		

* $p < 0.05$, ** $p < 0.01$, *** $p < 0.001$.

게 나타났다. 그러나 '타이트한 원피스'(f = -2.88, p < 0.01)의 경우에는 여자가 2.97점, 남자가 3.22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니스커트'(f = -2.76, p < 0.01)의 경우에는 여자가 3.25점, 남자가 3.48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망사처럼 보일 듯 발 땀 한 옷'(f = 2.32, p < 0.05)의 경우에는 여자가 3.73점, 남자가 3.52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볼 때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이 성충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신체의 직접적 노출 의상뿐만 아니라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복 역시 성충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노출뿐만 아니라 옷을 몸에 타이트하게 입어 몸의 곡선미를 뚜렷하게 나타내면 남성에게는 여성의 나체를 연상하게 하며, 인체의 굴곡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누드보다 더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정민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몸의 실루엣을 드러냄으로서, 섹시함을 강조하는 의상 역시 남성에게 여성의 나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성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3. 신체 노출 의복에 대한 느낌

연구 결과 2에 의하면, 신체 노출 의복은 남녀 모두에게 성충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성충동을 일으키는 의복을 신체 노출 의복으로 정의 하여, 신체 노출 의복을 입었을 때 지각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문제를 위해, 신체가 많이 노출된 의복을 봤을 때 느낌을 주관식으로 기술하게 하여 총 20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 1에 나타난 것처럼, 성충동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러한 노출이 심한 의복을 착용하는지의 착용 이유와 착용했을 때 지각자가 느끼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빈도 분석, 교차 분석,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서 보여진다.

<표 6>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더운 날씨'가 36.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표 6> 성별에 따른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

	여자	남자	합계	$\chi^2(p)$
더운 날씨	88	119	207	12.268 (0.056)
	34.9%	38.3%	36.8%	
자기 만족	51	39	90	
	20.2%	12.5%	16.0%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몸매 과시)	20	41	61	
	7.9%	13.2%	10.8%	
유행	12	25	37	
	4.8%	8.0%	6.6%	
개성 표현	32	36	68	
	12.7%	11.6%	12.1%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47	49	96	
	18.7%	15.8%	17.1%	
기타	2	2	4	
	0.8%	0.6%	0.7%	
합계	252	311	563	
	100.0%	100.0%	100.0%	

않는다'가 17.1%, '자기 만족'이 16.0%, '아름나워 보이기 위해'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로, 여대생은 '더운 날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만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개성 표현', '몸매 과시', '유행'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더운 날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몸매 과시', '자기 만족', '개성 표현', '유행'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노출 의상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운 날씨'로, 여대생은 34.9%, 남학생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여지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더운 날씨'가 커다랗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적인 것 외에 자기 만족, 몸매 과시, 개성 표현, 유행 등으로 차이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김지현(2007)이 신체 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목적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내면의 욕구에서 기인하다는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한 사람을 보았을 때 각각의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봤을 때 느낌에서, '당당해 보인다', '부럽다', '걱정된다', '선정적이다', '할 일 없어 보인다'를 제외한 나머지 느낌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당당해 보인다'와 '선정적이다'는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더위에 시원해 보인다'의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의 연구에서 노출 옷을 입는 이유가 더워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과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피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꿀벌견이다', '생각 없어 보인다', '매력적이다', '노출이 너무 심하다', '몸매가 돋보인다',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 '비싸 보인다', '성격이 나빠 보인다', '여성스럽다', '새로워 보인다', '천박해 보인다',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인다'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 '해피 보인다', '몸

매가 돋보인다', '생각 없어 보인다'의 순으로 느낌을 가졌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몸매가 돋보인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가졌으며, 다음으로는 '매력적이다',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 '노출이 너무 심하다', '당당해 보인다'의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노출 의상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피 보인다'($t=3.76, p<0.001$)의 경우, 여학생($m=3.59$)이 남학생($m=3.25$)보다 노출이 심한 옷에 대해서 더 해피 보인다고 생각하였으나, '건강해 보인다'($t=-3.45, p<0.001$)의 경우에는, 여학생($m=2.69$)보다는 남학생($m=2.96$)이 더 긍정적($t=-3.45, p<0.001$)으로 반응하였다.

'꿀벌견이다'($t=5.37, p<0.001$)의 경우에는 여학생($m=3.13$)들이 남학생($m=2.60$)들보다 노출된 옷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생각 없어 보인다'($t=3.42, p<0.001$)의 경우도 여학생이 3.24점으로 남학생 2.93점 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매력적이다'($t=-6.73, p<0.001$)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2.91점, 남학생이 3.44점으로 노출한 의상을 착용한 사람을 보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매력 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cCullough이 많은 여성들이 의복을 성적 매력 향상의 도구로 간주하며 성적 매력의 도구로서 노출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노출 의상을 매력적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일치한다.

'노출이 너무 심하다'($t=2.52, p<0.05$)의 경우에는 여자가 3.62점, 남자가 3.41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노출한 의상을 봤을 때 노출이란 관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몸매가 돋보인다'($t=-2.85, p<0.01$)는 여자가 3.32점, 남자가 3.53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t=-9.95, p<0.001$)의 경우에는 여자가 2.60점, 남자가 3.42점으로 남자들이 노출 의상에 대해 여학생보다 매우 높게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평가한 반면,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t=4.21, p<0.001$)는 여학생($m=3.65$)이 남학생($m=3.24$)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비싸 보인다'($t=-3.53, p<0.001$)의 경우에는 여자

<표 7> 성별에 따른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의 느낌 차이

		N	M	SD	t	p
헤머 보인다.	여자	252	3.59	1.01	3.76***	0.000
	남자	312	3.26	1.06		
건강해 보인다.	여자	252	2.69	0.87	-3.45***	0.001
	남자	312	2.96	0.99		
몰블건이다.	여자	252	3.13	1.08	5.37***	0.000
	남자	312	2.64	1.09		
생각 없어 보인다.	여자	252	3.24	1.08	3.42***	0.001
	남자	312	2.93	1.08		
낭당해 보인다.	여자	251	3.21	0.94	1.58	0.116
	남자	312	3.34	0.98		
매력적이다.	여자	252	2.91	0.96	-6.73***	0.000
	남자	312	3.45	0.92		
노출이 너무 심하다.	여자	252	3.63	0.99	2.52*	0.012
	남자	312	3.41	1.01		
몸매가 돋보인다.	여자	251	3.32	0.90	-2.85**	0.005
	남자	312	3.54	0.89		
성직 충동이 일어난다.	여자	252	2.60	0.92	-9.95***	0.000
	남자	312	3.42	1.00		
더위에 시위해 보인다.	여자	252	2.21	1.08	-0.145	0.885
	남자	312	2.23	1.08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	여자	252	3.66	1.14	4.21***	0.000
	남자	312	3.24	1.20		
바싸 보인다.	여자	252	2.00	0.86	-3.53***	0.000
	남자	312	2.29	1.00		
상각이 나빠 보인다.	여자	252	2.81	1.10	2.10*	0.036
	남자	312	2.62	1.09		
걱정된다.	여자	252	2.82	1.08	0.041	0.968
	남자	312	2.82	1.28		
선정적이다.	여자	251	3.16	1.03	-0.56	0.576
	남자	312	3.21	1.04		
여성스럽다.	여자	252	2.46	1.00	-8.11***	0.000
	남자	312	3.16	1.04		
새로워 보인다.	여자	252	2.41	1.04	6.74***	0.000
	남자	312	3.00	1.04		
천박해 보인다.	여자	252	3.21	1.07	4.28***	0.000
	남자	312	2.79	1.22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인다.	여자	252	2.57	0.92	-5.01***	0.000
	남자	312	2.98	1.00		
형 일 없어 보인다.	여자	252	2.62	1.19	0.37	0.711
	남자	312	2.58	1.23		

* $p < 0.05$, ** $p < 0.01$, *** $p < 0.001$.

가 2.00점, 남자가 2.28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성격이 나빠 보인다'(t=2.10, p<0.05)의 경우에는 여자가 2.81점, 남자가 2.61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노출 의상이 성격 특성과 관련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스럽다'(t=-8.11, p<0.001)의 경우에는 여학생(m=2.46)보다 남학생(m=3.16)이 노출 의상을 더 여성스럽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새로워 보인다'(t=-6.74, p<0.001)의 경우에도 여학생(m=2.40)보다 남학생(m=3.00)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천박해 보인다'(t=4.28, p<0.001)의 경우에는 여대생(m=3.21)이 남학생(m=2.79)보다 노출 의상을 더 천박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인다'(t=-5.01, p<0.001)의 경우에는 여자가 2.56점, 남자가 2.97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각 문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노출 의상에 대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해 보인다', '당당해 보인다', '매력적이다', '몸매가 돋보인다',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 '비싸 보인다', '여성스럽다', '새로워 보인다',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인다'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헤퍼 보인다', '꿀벌견이다', '생각 없어 보인다', '노출이 심하다',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 '성격이 나빠 보인다', '천박해 보인다'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노출 의상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평가하며 여학생들은 노출 의상에 대해 많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노출 의상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는 한편 성적 충동도 강하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조선에 연재된 '열린 가슴 클리비지 토크'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아직도 젊은 여성들은 신체 노출 의복에 대해 자신감과 성취 건강 함 같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헤퍼보인다 등의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더운 기후'가 착용자가 노출 의상을 입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지만 노출 의상에서 느끼는 지각자의 입장에서는 노출 의상을 봤을 때 '더위에 시원해 보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

다. 즉, 착용 이유와 지각 이유가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지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녀 대학생 그룹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여대생들은 더운 기후 때문에 자신이 노출 의상을 착용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노출 의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매력적, 건강해 보인다 등 매우 시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러한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성적 충동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노출 의복이 보수적 스타일의 의복보다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성범죄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Cahoon & Edmonds(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들은 성충동을 '일시적 성적 욕구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대생의 경우 '충동을 억제 못하는 행위'라고 대답한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이성에 대한 육체적 관심'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성충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능적 욕구', '자제력 부족', '정신적 문제'들로 개인의 내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인 요소로는 '대중매체'와 '웃차림'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성이란 이유', '노출이 심한 옷', '관능적인 여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노출이 심한 옷'의 경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통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여학생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의 시선을 끄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성추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성충동 피해 원인을 착용자의 노출 의복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 모두 '몸 전체에 노출이 심한 옷'과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선이 들여다 보이는 상의'가 가장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어깨가 없는 탑', '망사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옷', '얇거나 비치는 옷'의 순서로 성충동이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얇

거나 비치는 옷', '망사처럼 보일 듯 밟 듯 한 옷', '매 전체 노출이 되는 옷', '미니스커트'의 순서로 나타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성충동 피해를 당한다고 나타난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신체가 많이 노출된 낮은 목둘레선, 미니스커트, 비치거나 몸에 꼭 끼는 의복이 성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남녀 그룹간의 차이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이 성충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신체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뿐만 아니라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복 역시 성충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너운 날씨'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한 사람을 봤을 때의 느낌에 있어서는 남녀 대학생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활동하기 불편해 보인다', '해피 보인다', '봄매가 돋보인다', '생각 없이 보인다'의 순으로 느낌을 가졌으나, 남학생의 경우 '몸매가 돋보인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가졌으며, 다음으로는 '매력적이다',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 '노출이 너무 심하다', '당당해 보인다'의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더운 기후'가 노출 의상을 입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지만 노출 의상에서 느끼는 지각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노출 의상을 '더위에 시원해 보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즉, 착용자와 지각자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지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녀 대학생 그룹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여대생들은 더운 기후 때문에 자신이 노출 의상을 착용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노출 의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매력적, 건강해 보인다는 매우 시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러한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성적 충동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노출의 의복은 보수적 스타일의 의복보다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성범죄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충동 발생 이

유가 대부분 정신적 문제나 일시적 욕구 등의 개인의 내적 요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옷차림 등의 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외모를 치장할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외양에서 드러나는 의복 메시지를 지각자가 어떻게 전달받고 이해하며 반응하는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성적 매력의 동기는 여성이 노출을 통해 성적으로 매력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남성에게 강한 성적충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같은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의복의 외양에 머물지 말고 그 의복이 주는 메시지를 알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 되돌아오는 메시지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령별, 지역별로 보다 다양한 계층을 조사,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에란, 강혜원 (1992).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권 3호.
- 권기영 (2004). "패션잡지 광고에서 보여 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호.
- 김선영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 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7권 1호.
- 김수심 외 3인 역 (199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성관리학회지* 17권 3호.
- 김용미, 김현옥 (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

- 관리학회지 19권 4호.
-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탈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를학회지* 18권 4호.
- 김지연, 이경희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 노출의 감성 연구." *의류학회지* 25권 2호.
- 윤경자 (1995). "대학생들의 혼전 성 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권 4호.
- 윤경자 (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호.
- 이명선 (1999). "청소년의 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6권 2호.
- 이정민 외 2인 (2005).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의 인지도에 관한 성별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0호.
- "열린가슴 클리비지 룩...자신감+섹시미 과시"(2003년 5월 7일) 스포츠 루데이;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stoo.com>
- Abbey, A., C. Gozzarelli, K. McLaughlin and R. Harnish (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7.
- Abbey, A., L. T. Ross, D. McDuffie and P. McAuslan (1996). "Alcohol and dating risk factors for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 Cahoon, D. D. and E. M. Edmonds (1987). "Estimates of opposite-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65.
- Hillestad, R. (1980).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Vol. 5.
- Lewis, L. and K. P. Johnson (1989). "Effect of dress, cosmetics,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TRJ*. Vol. 8 No. 1.
- Mathes, E. W. and S. B. Kempfer (1976).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3.
- Mazelan, P. (1980). "Stereotypes and receptions of the victims of rap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5.
- McGullough, E. A., et. al. (1977).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s and usage." *H.E.R.J.* Vol. 6.
- Small, S. A. and D. Kerns (199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No. 4.
- Smith, C.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Work* Vol. 42 No. 4.
- Wildman, R. W., A. Brown and C. Trice (1976). "Note on males' and females' preference for opposite sex body parts, bust sizes and bust revealing clothing." *Psychological Report* Vol. 38 No. 2.
- Zellman, G. and J. Goodchilds (1983). "Becoming sexual in adolescence." in E. R. Allgeier and N. B. McCormick, ed., *Changing Boundaries: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